Ⅰ 서론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의 급증으로 인해 일부 보험회사가 신규 판매를 중단하는 등 지속성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실손의료보험 문제에 대해 보험료 인상, 보장구조 변경 등의 대안부터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등 다양한 해결책이 논의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 관련 이슈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실손의료보험과 비슷한 구조적 적자 문제와 시장 철수를 경험했던 미국의 장기요양보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장기요양보험은 1970년대 도입되어 한때 보험회사 수가 100여 개에 이르렀으나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현재는 10여 개 회사만 판매 중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회사 차원의 구조조정과 정부 차원의 대응 노력이 진행 중이다.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도입 초기에는 주로 상품수용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현재는 재무건전성 이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향후에는 어떤 이슈가 대두될 것인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① 현재의 재무건전성 이슈가 지속되는 시나리오, ② 상품수용성이 이슈가 되는 시나리오, ③ 재무건전성과 상품수용성이 모두 이슈가 되는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이 미국의 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길을 갈 것이라는 전제 하에, 즉 재무건전성과 상품수용성이 모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 하에 현재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보고서의 결론에서 제시한 제안들은 금융당국이나 보험회사가 당장 추진해야 할 정책이나 전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연구자들이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한 연구과제의 성격이 강하다.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었던 선행연구로는 조재린·정성희(2018), 정성희 외(2018), 정성희·문혜정(2019), 정성희·문혜정(2020), 정성희·홍석철 외(2022), 정성희·이태열 외(2022) 등이 있다. 저자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수용성 및 건전성 이슈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미국의 장기요양보험 사례를 참고했던 선행연구는 없었다. 기존 선행연구의 경우에는 주로 공·사 건강보험 역할 정립 이슈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주요국의 민영 건강보험 사례를 참고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시장 현황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제Ⅲ장에서는 개별 보험회사 차원의 대응과 정부 차원의 대응을 중심으로 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과 미국 장기요양보험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를 선택해서 두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비교분석의 범위는 보험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험의 재무건전성 및 상품수용성 이슈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제도나 정책)들을 포함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3가지 측면에서 국내 실손의료보험과 미국 장기요양보험을 비교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보험상품의 진화, 두 번째는 구조조정제도, 세 번째는 조세지원정책이다. 첫 번째가 보험 자체에 대한 이슈라고 하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보험의 재무건전성 및 상품수용성과 연관성을 가진 제도나 정책에 대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구조조정제도를 비교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이유는 현재도 일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중단했지만 향후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시장 철수 관련 이슈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 대비하여 적자 사업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한 구조조정제도에 대한 연구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조세지원정책의 경우에는 향후 시나리오의 하나로 실손의료보험의 상품수용성 저하를 예상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품수용성 제고 수단의 하나로 조세지원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제Ⅳ장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① 상품개발, ② 구조조정, ③ 세제지원의 3가지 측면에서 국내 실손의료보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마무리한다.